

건축문화 R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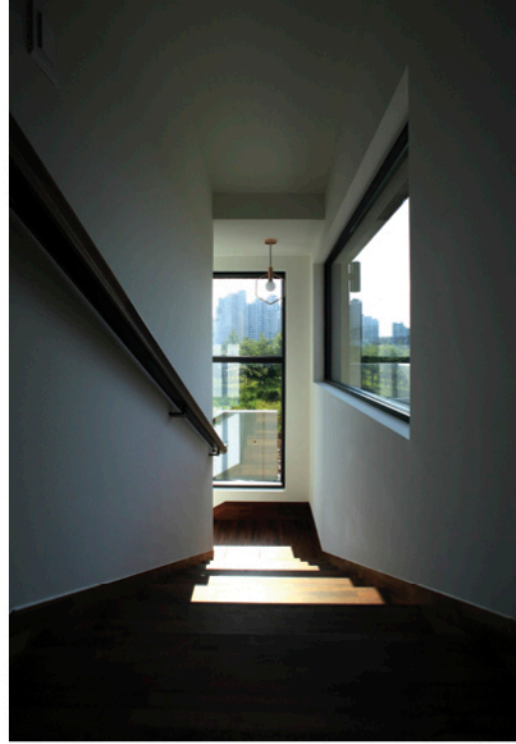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8.3.100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사랑



광주건축사회 제16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지난 2월 27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띤 토론 진행돼

광주건축사회 제2회 이사회의에서 제31회 정기총회 표창 수상자 결정

오는 3월 15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시상, 관계 건축직 공무원 및 퇴임임원 27인 선정

대한건축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광주지역 표창 수상자 결정

광주시회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표창전수... 명예 회원에 조용준 조선대 교수 추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 검사 이용 안내

80종의 시험기구 갖추고 152종목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

전남건축사회, 2018년도 제52회 정기총회 성료

지난 3월 7일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신임회장으로 조연준 회장 선임

Editorial

은메달

전남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우수건축사회 표창 수상

지난 2월 22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경기 최우수, 충북 우수

전남 순천시의 도시재생, 자치분권 혁신모델로 부각

자치분권의 성공 사례지역으로 중앙부처에서 순천 방문 연일 이어져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2018년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이태원 건축사 선임, 전주시에 저소득계층 주거개선사업 후원금 500만 원 전달도

전북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새 단장'

월명동 고우당 2층 건물에서 영화동 구) 국립검역소 부지로 이전

원광대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 'Asia Design Prize 2018' 수상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 설계로 건축물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

함평교육지원청 청사 이설공사 설계공모

책 소개 _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Editorial

은메달

이례적으로 추웠던 지난해 겨울, '영미'와 킬링은 가슴을 따듯하게 만들어버린 마법이였다. 비 인기 종목인 킬링에서 마블 소녀들이 은메달을 땀다. 생소한 게임이 관심을 끌면서 자동청소기, 호박, 주전자 등을 이용한 패러디도 많이 만들어졌다. 물론 '영미'라 외치면서...

킬링뿐만 아니라 볼슬레이, 스키텔론 등 익히 들어보지 않았던 게임에서도 메달을 땀다. 기존 쇼트트랙만이 아닌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따고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국민들은 스케이트, 스키 외에도 여러 동계스포츠 종목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다양성의 승리다. 스키와 스케이트 선수에게만 집중하여 연습하고 투자를 하였다면 우리는 영미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매년 3월이면 '하얏트 재단'이 주관하는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발표가 있다. 금년 40번째 수상자는 인도 건축가 겸 도시설계가 발크리쉬나 도쉬(Balkrishna Doshi, Hon)이다.

도쉬는 좋은 건축, 좋은 도시계획은 단순히 '용도와 구조물의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입지 특성·지역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술과 장인정신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상하였으며, 그간 미국인 8명, 일본인 6명, 영국 4명이 수상하였다. 중국도 1명이 수상하였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수상자가 없다.

건축이 스포츠와 달리 꼭 메달을 따고 상을 타야만 문화적으로 우수하고, 국가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메달을 딴 동계 올림픽의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비교는 된다.

수월성, 경제성, 합리성의 건축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조와 명성 있는 외국 건축사의 간판(?)을 원하는 건축주, 설계면적으로 평가하는 최저가(최적가) 입찰 등 건축 환경은 동계올림픽 비인기 종목과 차이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결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이 프리츠커 수상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만 번트록은 네 가지를 말하였다. 국제적인 보편적인 의식, 문화 교육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외부인이 건축 작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적인 맥락, 활발한 출판 활동이다.

우리 스스로가 현 위치를 알고,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건축계도 세계인들에게 '영미'라 불릴 것이다.

정금호 논설위원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건축사회 340여 명 회원의 선택은!!! 제16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 지난 2월 27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진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194988번에 영상게재
- 세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방향성 검토 등 향후 광주건축사회 3년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적합성 검증하는 자리였다는 평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주)는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16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되는 회장 선거에서 회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여 광주건축사회 향후 3년을 이끌 회장으로 어떠한 후보가 적합한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심상봉 건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회순은 후보자 모두발언과 공통질의응답, 후보자 간 상호 질의응답, 방청석 질의응답,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 광주건축사회 제16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요

- ▶ 일 시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4시
- ▶ 장 소 : 광주건축사회 5층 대회의실
- ▶ 참 석 : 회원 40여 명
- ▶ 좌 장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심상봉 건축사
- ▶ 토론자
 - 기호1번 : 강현구 건축사(조형 건축사사무소(주))
 - 기호2번 : 정인채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정호
 - 기호3번 : 정상채 건축사(초석 건축사사무소)
-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용주 선거관리위원장 인사말

좌장을 맡은 심상봉 건축사

해당 토론회의 영상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94988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합동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공통질의응답' 순서의 총 4가지 질의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 공통질의 4문항 및 답변(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광주건축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질의 사항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공통질의로 4가지를 결정했다.)

(1번 질의) 광주건축사회와 회원 간 소통에 관한 질문

▶ 광주건축사회는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건축사회와 회원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원의 생각과 불편한 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후보자께서는 회원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1번

회장후보 기호1번 강현구 건축사

(1번 답변 순서 : 기호1번 강현구 → 기호3번 정상채 → 기호2번 정인채)

▶ 기호1번 : 예전 매년 2회로 행사를 가졌는데 최근에는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연간 2회로 봄, 가을에 체육대회나 야외행사를 가져서 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우회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월 번갈아 가면서 동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이나 감리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회원 간의 갈등문제를 회장이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호3번 : 광주건축사회와 회원 간 소통은 중요한 일입니다. 현장에서나 업무 대행이나 분리감리로 인하여 회원들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후배 간에 자주 만나지 않아 얼굴 및 건축사 간 선후배 간이지도 모르고 낯선 사람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음 체육대회나 회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 협회와 회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기호2번 : 저의 모든 공약은 "첫째도 회원이요, 둘째도 회원이다"라는 기본원칙으로 수립했습니다. 회원들과 소통하고 기본적으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스킨십을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회장과의 대화방을 홈페이지에 신설 운영하고, 둘째는 건축사의 밤 행사와 체육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회원들 간 서로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협회 이사회 개최 시 5개 구별 협의회장 의무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구별 회원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2번 질의) 광주광역시 및 5개 구청의 건축 행정에 관한 질문

▶ 현재 회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건축 인허가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구청별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고 처리 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답변 순서 : 기호3번 정상채 → 기호2번 정인채 → 기호1번 강현구)

▶ 기호3번 : 우리 광주 건축사회원들의 가장 당면한 과제이지요. 저도 인허가 하는데 누구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또는 각 기관에 따른 다른 많은 문제들로 인해 수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 및 5개 구청과 우리 협회 세미나 및 정기적인 토론회를 거쳐 통일된 대관 업무 매뉴얼과 사용승인 신청 전에 협의 부서 준공필증을 첨부하여 건축사 업무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회장후보 기호2번 정인채 건축사

▶ 기호2번 : 이 부분은 5개 구청 직원들 내지는 간부들과 원할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광주건축사회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며 5개 구청과 수시로 여러 정책에 대해 협의해 왔습니다. 회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하게 되면 즉시 구청과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처리 기간 준수

와 허가제출 서류 간소화 및 임의규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건축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제 및 건축심의제도 개선과 질의회산 대응을 위한 법제위원회도 적극 운영하여 현재 각 구청마다 법에 대해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대응이 아닌 협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호1번 : 건축인허가는 구청장의 의지도 많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시도의 비슷한 사례를 수집하여, 해당 구청에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해당 구청장이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개선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의 허가, 착공, 사용승인 서류도 표준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번 질의) 광주시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

▶ 광주시 및 관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찰제도에 대해 회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 후보가 생각하는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답변 순서 : 기호2번 정인채 → 기호1번 강현구 → 기호3번 정상채)

▶ **기호2번** : 많은 회원들께서 입찰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에는 전기나 통신, 소방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우리 건축사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손해 봐야 합니다. 협회에서 우선 입찰제도에 대한 전체 회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장이 되면 먼저 입찰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받고 개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순으로 주기적인 입찰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대외적 여론 형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후 대한건축사협회 본 협회와의 협력을 거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호1번** : 먼저 광주시 입찰을 보면 정말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설계와 전기, 통신, 소방이 공동도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 통신, 소방업체는 15개 업체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봐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입찰 제도를 반드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구를 안 들어줄 경우 전체 입찰에 대해 보이콧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설계 입찰 시 계획 설계비가 빠져서 입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 설계비를 포함시켜서 입찰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대가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감리의 모순점도 있는데 감리에서 건축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장후보 기호3번 정상채 건축사

▶ **기호3번** : 입찰제도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격심사는 중앙정부 차원이지만 협정제도는 우리가 광주시와 조금만 협의하여 조례 등을 바꾸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전기, 통신, 소방, 도시계획 등 협력업체들은 중복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건축사가 주된 계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공사비는 증액되고, 설계비는 증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협의를 통해 반드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호2번** : 그동안 합동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그룹화 등 협회 차원에서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 운영 모델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께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셨지만 결국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큰 효과는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1인 사업장이 많아진 추세에 협회에서는 그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먼저 산학협력 등을 통해 맞춤형 건축사보 인력풀 구축과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1인 사업장 및 신진건축사를 위한 금융과 절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건축사 교육도 실질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4번 질의)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질문

▶ 한때 건축사 합동사무소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건축구조, 설비 시스템을 갖춘 대형건축사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세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합동토론회

(4번 답변 순서 : 기호1번 강현구 → 기호3번 정상채 → 기호2번 정인채)

▶ **기호1번** :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의 한 부분으로 스타트업 개념의 건축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안에 각종 커뮤니티와 편의시설을 만들고 1인 사무실과 이제 출발하는 후

배 회원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타운으로 경비 절약과 정보공유 등 회원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수익 사업을 시행해서 회원들에게 월 100만 원 상당의 별도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사업으로 외주 용역업인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구조, 안전진단, 각종시험 성적기관, 에너지절약 심의기관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의 커다란 힘을 우리 건축사협회가 가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 **기호3번** :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건축구조설비 시스템을 갖춘 대형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구조설비 시스템을 갖춘 대형 사무소보다는 현실적으로 나 홀로 건축사들이 많으므로 이분들을 한 곳, 즉 하나의 빌딩을 임대하거나 신협 1층 땅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층수는 임대사무실로 신축하여 회원들에게 저임대료 소형 그룹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장 선거 후보자들과의 기념촬영

▶ **기호2번** : 그동안 합동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그룹화 등 협회 차원에서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 운영 모델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께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셨지만 결국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큰 효과는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1인

사업장이 많아진 추세에 협회에서는 그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먼저 산학협력 등을 통해 맞춤형 건축사보 인력풀 구축과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1인 사업장 및 신진건축사를 위한 금융과 절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건축사 교육도 실질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광주건축사회 제16대 회장 선거 및 2018년 감사 선거 후보자 공보

회장 후보

함께 그려나갈 우리의 비전
앞장서겠습니다
1 강현구

정확한 회장!
원만한 회장!
든든한 회장!
회원을 위한 믿음직한 일꾼
2 정인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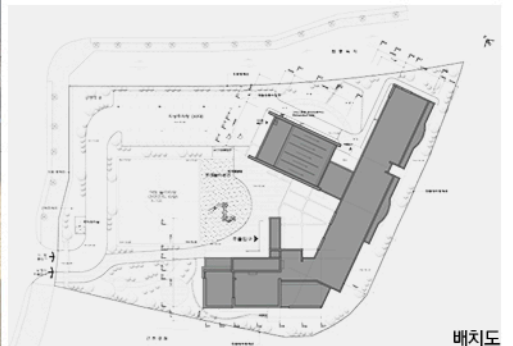
“오직 회원만 바라보겠습니다!”
3 믿음직한 회장 정상채

감사 후보

현실을 중요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원칙에 충실하고
2018년 감사선거 감사후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자비롭게 판단하겠습니다.
기호1번 강형선

효천다솜유치원

김봉성 건축사 / 비에스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운천로92번길 1, 3층
 Tel. 062-383-1759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605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971.20㎡ / 건축면적 : 1,944.26㎡ / 연면적 : 4,228.44㎡ / 건폐율 : 27.89%
 용적률 : 57.14%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주요 마감 : 점토벽돌쌓기, 고밀도섬유패널 외

광주건축사회 제2회 이사회의에서 제31회 정기총회 표창 수상자 결정 오는 3월 15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시상, 관계 건축직 공무원 및 퇴임임원 27인 선정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2월 19일 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제31회 정기총회의 표창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표창 수상자 결정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제1회 이사회의에서 표창 대상을 구분하여 협의한 후 최종 의결한 것이다.

건축직 퇴임(예정포함) 공무원으로서 재임 기간 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7인의 공무원과 건축직 현직 공무원으로서 건축사 위상제고에 노력한 7인의 공무원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하였으며, 정기총회 기준으로 건축사회와 건축사실험의 임기만료 및 퇴임 임원 13인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된 표창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소속 및 직원 | 성명 |
|--------------|--------------------------|-----|
| 퇴임 공무원 (감사패) | 광주디자인센터 사업본부 사업본부장 | 윤정권 |
| | 前)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 윤재철 |
| | 前)광주광역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단장 | 이규남 |
| | 前)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소장 | 박 산 |
| | 前)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안전도시국 국장 | 정대권 |
| | 前)광주광역시 북구청 안전도시국 국장 | 박주욱 |
| | 前)광주광역시 서구청 안전도시국 국장 | 홍복기 |
| 현직 공무원 (감사패) | 광주광역시 서구청 안전도시국 국장 | 이환의 |
|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사무관 | 김윤오 |
| |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주무관 | 강상백 |
| | 광주광역시 동구청 주무관 | 오정아 |

| 구분 | 소속 및 직원 | 성명 |
|--------------------|--------------------|-----|
| 현직 공무원 (감사패)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주택과 주무관 | 문보선 |
| |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주무관 | 허신욱 |
| |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주무관 | 장태원 |
| 광주건축사회 퇴임 임원 (공로패) | 이조 건축사사무소 대표 | 윤양현 |
| | (주)홍 건축사사무소 대표 | 박재홍 |
| | 이영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영문 |
| | 동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 장동원 |
| | 수전 건축사사무소 대표 | 조휴환 |
| | 종합건축사사무소 메가 대표 | 강형선 |
| | (주)백두 건축사사무소 대표 | 강연심 |
| 신협 퇴임 임원 (공로패) |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대표 | 정인채 |
| | 선택 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 곤 |
| | 나래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혜란 |
| | 은 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경우 |
| |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대표 | 한명석 |
| 시화 신협 감사 | 건축사사무소 이감 대표 | 박진호 |

대한건축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광주지역 표창 수상자 결정

광주시회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표창전수... 명예 회원에 조응준 조선대 교수 추대

대한건축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표창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제2회 이사회의를 지난 2월 7일 개최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받아들여 광주지역 표창 수상자를 결정했다.

건축사사무소 이감 박진호 건축사를 공로회원으로 결정하고, 광주시 건축주택과 최상호 사무관에 대해서 감사패를, 광주건축사회 이권만 과장에게 우수직원상을

| 광주건축사회 2018년도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8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1) 실시근거 : ①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2) 실무교육 계획

| 월 | 일시 | 종류 | 과목 | 강사(예정) | 장소 | 교육시간 | 교육비 |
|----|-----------------------|----|---------------------|---------------------------|-----------|------|---------|
| 3월 | 27일(화) 14:00~15:00 | 윤리 | 건축과 인문학의 만남 | 김문조 교수 중앙대 | 5층 대강당 | 1시간 | 무료 |
| | 27일(화) 15:00~18:00 | 전문 |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박일수 센터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3시간 | 45,000원 |
| 4월 | 24일(화) 14:00~16:00 | 전문 | 광주시 건축정책과 제도 | 배윤식 과장 광주시청 | | 2시간 | 30,000원 |
| | 24일(화) 16:00~18:00 | 전문 | 4차산업혁명과 국내·외 건설경기전망 | 정명철 건축사 (주)에이엠지 건축사사무소 | | 2시간 | 30,000원 |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4) 출석인정

-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출석체크

-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6)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eojeon 85-1

박대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광야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65-1, 205호
 Tel. 062-361-9745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85-1 / 대지면적 : 160㎡ / 건축면적 : 55.27㎡ / 연면적 : 89.11㎡
 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경량목구조

수여하기로 했다. 또한 명예 회원으로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명예교수를 추대했으며 수상 대상자에 대한 표창장 및 명예 회원증 전달식은 오는 3월 15일 개최되는 광주건축사회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조용준 (명예회원) 건축사사무소 이감 건축사 박진호 (공로회원)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사무관 최상호 (감사패) 광주건축사회 과장 이권만 (우수직원상)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 검사 이용 안내

80종의 시험기구 갖추고 152종목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만능시험기 등 80종의 시험기구를 갖추고 토질시험 등 152종목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타 검사기관보다 저렴한 만큼 광주지역 건축사들이 많은 이용을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하며 “아울러 품질시험 의뢰(신청) 시는 품질검사 의뢰서를 참고하여 시험의뢰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감리)자 명으로 작성하여 의뢰(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품질검사 의뢰서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94786번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과(Tel. 062-613-6787 / Fax. 062-613-6789)로 문의하기 바란다.

한국감정원, 2017년 건물신축 단가표 발간

2017년 기준 건물신축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4.90% 상승



한국감정원이 건축물의 용도·구조별 신축가격을 조사·제공하는 '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감정원이 1969년 설립된 이래 48년간 발간해 온 책자로, 감정평가, 국부통계, 과표산정,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에는 건물 401종의 신축 표준단가와 전기, 위생, 냉난방 등 부대설

비 35종의 보정단가 및 참고 사진과 도면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일부 건물의 용도·구조별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용어를 건축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했다.

한편 2017년 기준 건물신축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4.90%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창고시설(5.47%), 근린생활시설(5.25%), 공장(5.23%) 등의 순으로 상승했으며 구조별로는 조적조(시멘트블록)(5.98%), 조적조(시멘트벽돌)(5.68%), 조적조(연와)(5.44%) 등의 순으로 올랐다.

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ab.r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구입할 수 있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종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아 / 광주 서구 쌍촌로 67-1, 2층
 - 유영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뜰 /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43-20, 2층
- 전입
 - 김용출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정호제이 / 전남 → 광주 서구 화정로 82-1, 3층
- 변경(형태, 사무소명)
 - 이관욱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 건축사사무소 영일
- 변경(소재지)
 - 허만수 건축사 /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일곡로41번길 35, 1층
 - 정준태 건축사 / 인성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303호
 - 유형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210번길 16-8
 - 양종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원형 /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124번길 51, 1층
 - 김종필 건축사 / 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서석로 30, 4층

세무법인 서정, 광주건축사회 세무자문위원 정호령 세무사

“국세청 22년 경력으로 어려운 세금문제 도와 드립니다.”

▶ 취급업무 ◀

세무상담 / 신고대리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조세불복 / 세무조사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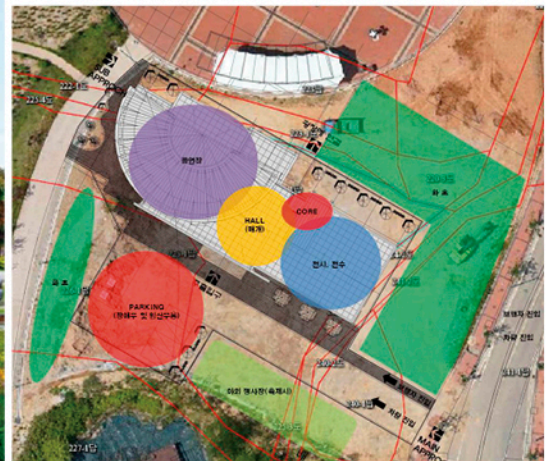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887 (쌍촌동, 낙헌빌딩 3층)
 지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3길 12 (Tel. 063-277-0544)
 Tel. 062-385-6076 / Fax. 062-575-3109 / E-mail : ho-rjung@hanmail.net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김성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맥토
전남 여수시 시청서1길 54-6, 2층 Tel. 061-683-3312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북룡리 224-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862㎡ / 건축면적 : 722.41㎡ / 연면적 : 972.17㎡
건폐율 : 38.8% / 용적률 : 52.21% / 규모 : 지상 2층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전남건축사회, 2018년도 제52회 정기총회 성료

지난 3월 7일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신임회장으로 조연준 회장 선임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박용묵)는 지난 3월 7일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8층 연회장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및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회계결산과 2018년도 예산승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했다.

특히 이번 임원선출의 건에서는 단독 회장후보로 출마한 여수지역의 건축사사무소 창조 조연준 건축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으며, 신임감사에는 목포지역 백 건축사사무소 백재봉 건축사를 선출했다.

조연준 신임회장은 "앞으로 3년간 전남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전남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박용묵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박용묵 회장은 전남건축문화발전과 도건축사회 발전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6인(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정선호, 순천시 허가민원과 정

미열, 목포시 건축행정과 정인선, 광양시 건축과 정인두, 무안군 허가경제과 윤영호, 영암군 종합민원처리과 전우연)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 전남건축사회 제29대 신임회장 프로필

| | |
|------|---|
| 생년 | 1962년생 |
| 입회 | 1995년 12월 27일 |
| 사무소명 | 건축사사무소 창조(여수) |
| 최종학력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전공 박사 |
| 경력 | 전라남도건축사회 부회장(전)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위원(현)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현) 전라남도 한옥지원단 위원(현)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현) |



전남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우수건축사회 표창 수상

지난 2월 22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경기 최우수, 충북 우수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우수·시·도건축사회 표창을 수상했다.

시·도건축사회 표창은 한 해 동안 건축문화 및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건축사회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시상하는

부문이다. 한편 이날 최우수·시·도건축사회 표창은 경기도건축사회가 우수·시·도건축사회 표창은 전남건축사회와 함께 충북건축사회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CAD의 혁신

midas ARCHIDESIGN - 마이다스 아키디자인은 도면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건축설계 전용 CAD입니다.

자동생성·축척자동·정보연동이라는 정보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도면작업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MIDAS ARCHIDESIGN

마이다스 아키디자인



구산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박병엽 건축사 / 박병엽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양현로 23-1, 3층
Tel. 061-762-4480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510번지 외 2필지 / 대지면적 : 1,587.00㎡ / 건축면적 : 314.52㎡ / 연면적 : 852.86㎡
건폐율 : 19.82% / 용적률 : 53.74%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남 순천시의 도시재생, 자치분권 혁신모델로 부각

자치분권의 성공 사례지역으로 중앙부처에서 순천 방문 연일 이어져

전라남도 순천시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의 성공 사례지역으로 중앙부처에서 순천 방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등 4개 부서 과장 및 실무자 17명이 도시재생 선도구역과 청수골 새들마을, 청춘창고 등을 방문하여 주민 참여와 주도로 성과를 올린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비롯한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 일자리 창출 사례를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3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순천시를 방문해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청년 일자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대표적 선도 모범사례로 평가함으로써 관련 실무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온 것이다. 행정안전부 방문단은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사례를 청취하고, 도시재생 선도구역, 청수골 새들마을, 청춘창고를 차례로 방문했다.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 역량을 높여 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구) 승주군청의 존치 여부와 서문안내소의 설계안에 대한 초기 주민과의 갈등을 놓고 2~3년간 꾸준히 현장설명회와 주민토론회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순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요인인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사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런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우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201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에 추진해 왔으며 2015년에는 청수골 새들마을 조성사업도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6년부터 2년 연속 전국 13개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17년 국토부 도시재생 한마당 주민참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 근대건축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효자 노릇

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근대 건축물 다수

전라남도 목포시의 근대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목포는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1897년 국내 4번째로 개항했고 상인, 농민, 양반 지주층 등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모여들었다. 미곡 및 면화 수출항으로서도 역할을 하며 목포는 성장해갔다.

발전은 거듭한 목포는 근대적 학교와 의료기관이 전남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근대화의 선두도시로서 근대 문화를 전남 전역으로 전파했다. 항구도시가 누릴 수 있는 특수로 목포는 1940년대 전국 3대항 6대 도시로 명성을 떨쳤다.

이에 따라 목포는 자연스럽게 다수의 근대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현재까지 남아있는 당시 건물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격상됐다.

시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근대 건축 자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건축 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및 지역 지구 지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근대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시범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올해 국가 계획에 예산이 반영돼 3년 동안 총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설명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시, 1919년 건축된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복원 나서

2019년까지 15억 원 투입, 관사 정비와 주변 산책로 조성

전라남도 광양시의 대표적인 국가 등록문화재인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된다. 시는 2019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해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를 복원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동경제국대학 조선연습림 광양사무소 내에 직원 관사로 지은 건축물로 현재는 2개 동이 남아 국가등록문화재 제223호로 관리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보수정비 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사의 원형복원 등 개보수를 완료했다. 올해에는 주변 수목과 담장 정비를 추진하며, 방법과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사 주변의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전라남도에 신청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부터 장도전수교육관, 광양역사문화관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는 개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1919년에 건축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

전남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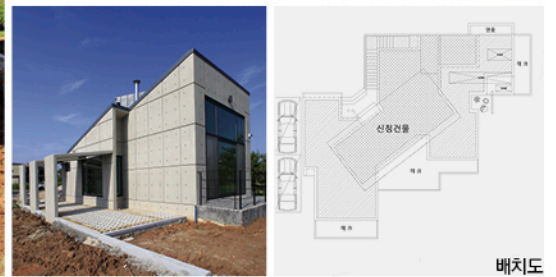
- **입회**
- 조동화 건축사 / 동화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23, 2층
- **변경(소재지)**
- 최기성 건축사/ (주)에스지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4길 5, 301호



무용헌

문병률 건축사 / 포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89 Tel. 063-227-0617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4-32 / 대지면적 : 391.90㎡ / 건축면적 : 156.54㎡ / 연면적 : 218.35㎡ / 용도 : 단독주택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노출콘크리트, 징크, 도석벽돌, 방갈라이



배치도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2018년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이태원 건축사 선임, 전주시에 저소득계층 주거개선사업 후원금 500만 원 전달도



전라북도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3월 7일 전주시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건축사회 전병갑 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김승수 시장,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건축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전주지역건축사회 이길환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건축사헌장 낭독, 개회사, 신임회원 인사소개, 부의안건 채택 및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안건심의 중 임원선출의 건에서 신임회장으로 예인 건축사사무소의 이태원 건축사를 선임하였으며, 감사에는 건축사사무소 초가건축 조기순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이건 이응록 건축사를 선출하고 이사는 당선된 회장에게 위임하여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이태원 신임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전주지역건축사회는 도내에서도 대표적인 건축사회로 성장, 발전했다”고 밝히며 “전주시의 건축문화창달 및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과 사회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이날 전주시 김승수 시장에게 관내 저소득계층에 대한 행복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유용한 밑거름으로 활용돼 달라고 ‘저소득계층

주거개선사업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주시는 이 후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고령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및 이사지원 서비스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주지역건축사회 제18대 신임회장 프로필

| | |
|------|--|
| 생년 | 1966년생 |
| 입회 | 2001년 7월 11일 |
| 사무소명 | 예인 건축사사무소(전주) |
| 최종학력 | 전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
| 경력 | 전주비전대학 겸임교수(현)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사(전) 전주시건축사회 이사(전) 전라북도건축사회 총무이사(전) 전라북도건축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전) |



이태원 건축사

전북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새 단장’

월명동 고우당 2층 건물에서 영화동 구) 국립검역소 부지로 이전



전라북도 군산시는 2월 12일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군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영화동 구) 국립검역소 부지로 이전, 새롭게 단장해 업무를 시작했다.

군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015년 4월 월명동 고우당 2층 건물 내에 개소해 월명동 일원의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총괄 지원과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돼 도시재생 선도사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5길 5-4, 2층 Tel. 063-276-0020



대지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1-8 / 대지면적 : 5,263㎡ / 건축면적 : 1,029.64㎡ / 연면적 : 1,826.21㎡ / 건폐율 : 19.56%
용적률 : 31.61%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군산시 전역에 대한 센터의 역할 증대를 위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1층은 주민 사랑방 역할인 문화체험공간과 관광객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 2층은 군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무실과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된다.

전북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적극 나서

적법화 추진능가,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해야... 적법화 계획서 평가 후 이행기간 부여

전라북도 완주군이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시달하는 등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완주군은 지난 3월 2일 "적법화 추진능가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완주군 읍면사무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완주군(환경위생과)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이행기간 내에 건축허가(신고)신청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를 첨부해 군(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적법화 대상이 기한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신청서 기준 미달로 반려·이행기간 내 인허가 미취득 등 적법화를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해 행정처분(고발명행) 등이 이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광대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 'Asia Design Prize 2018' 수상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 설계로 건축물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가 설계한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이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에 이어 2018 아시아 디자인상(ASIA DESIGN PRIZE 2018)

을 수상했다.

아시아 디자인상은 조형의 단순성과 복잡성을 벗어나 제품에 대한 창조성의 잠재력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규정된 아이디어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상으로 매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선별하는 국제공모전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35개국 1,359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65%가 외국 출품작인 가운데 원광대 박기우 교수는 Space/Architecture 부분에

서 디자인상을 받아 유명 건축물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동시 풍천면 호수공원에 위치한 박기우 교수의 설계 작품 '신도시 홍보관'은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153㎡에 전시실, 영상실,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 개장해 시민들의 문화 공간 및 자연 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전국 최초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기부 운영사업 시행

각종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주거복지도시 실현 위해 전문가 22명 위촉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노후주택 개보수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돕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용키로 하면서 더욱 촘촘한 서민 주거 안정망이 갖춰지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20일, 향후 추진될 각종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주거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건축과 주택, 주거재생, 주거환경, 복지, 부동산, 디자인 등 다양한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인적플랫폼을 구축,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기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2018년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1차 워크숍'을 개최해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올 한해 운영계획과 활동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복지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간이다. 주거복지 공공건축가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빈집활용 빈집임대주택 등 시에서 추진하는 공적임대주택 보급의 기획단계와 추진과정에서 각종 자문과 각 공정별 품질점검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거복지와 연계된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커뮤니티 공간 설계, 주거약자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 등에 상담과 자문을 맡게 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와 공무원, 공동체 활동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워크숍과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해 주거복지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다양한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적 플랫폼인 공공건축가 재능기부제도 운용으로 향후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빈집정비·집수리·단독주택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주만의 주거복지 정책이 발굴되고, 다양한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교류 및 정보 공유로 신진 전문가들도 발굴·육성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 회원동성

• 변경(사무소명)

- 박광성 건축사 / 바우 건축사사무소 → 바우하우스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유희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dn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61, 1023호
- 조은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JCN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2, 401호
- 박해숙 건축사 / 구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길 13-5, 302호
- 정근양 건축사 / 아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44-4

함평교육지원청 청사 이설공사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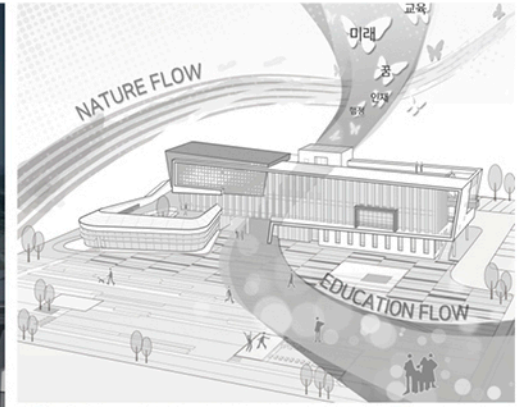
본 설계공모는 교육지원청 개편 취지에 부응하는 교육지원 행정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소통하는 학교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청사에 걸맞는 우수한 공공업무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 및 예술성 있는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심사위원 : 이동휘, 노태학, 강봉임, 양희진, 임용민, 문창호, 오형석, 최만진, 임병훈

- 대지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4-23번지 외 4필지
- 연 면 적 : 3,050.00㎡(±5% 이내)
- 대지면적 : 9,084.00㎡
- 용 도 : 업무시설(공공청사)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 공 사 비 : 8,018,134천 원

- 당 선 작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입선작-1 : 스페이스이오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입선작-2 :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입선작-3 : 건축사사무소 루
 * 자료 미제출
입선작-4 : (주)에스지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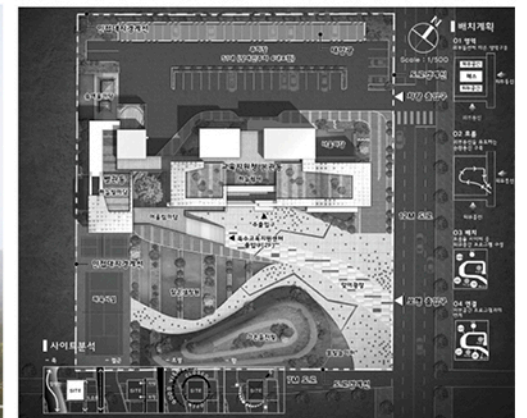
당선작

박동준 건축사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입선작-2

정관성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 김기준 건축사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사랑에서 _ 마흔 번째

눈발길 함부로 밟지 마라

지난겨울엔 많은 눈이 왔다. 춥기도 했지만 눈 풍경은 여느 겨울보다 좋았다. 1월 초 등산모임에서 무등산 눈 산행을 했다. 출발지인 산장 버스종점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착했다. 1187번 버스다. 무등산 정상 높이(1,187m)를 노선버스 번호로 사용한다. 버스 안에서 보는 산중 풍경은 장관이었다. 이곳 종점에서 출발하여 무등산 옛길 2구간을 따라 정상까지 가는 코스였다. 눈은 많이 왔고, 온도는 낮고, 이른 시간의 산행이라서 그런지 참으로 눈꽃이 아름다웠다.

선두에 선 사람이 앞서간다. 그 뒤에 일행이 뒤따른다. 먼저 만들어진 눈 발자국을 보고 걷는다.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은 눈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나 있는 발자국을 따른다. 누군가 더 이른 시간에 길을 내고 간 것이다. 그 길을 따라만 갔는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구절이 생각났다. "눈발길 함부로 밟지 마라." 만약 그 길이 헤맨 사람의 잘못된 길이었다면 우리일행도 헤맬 것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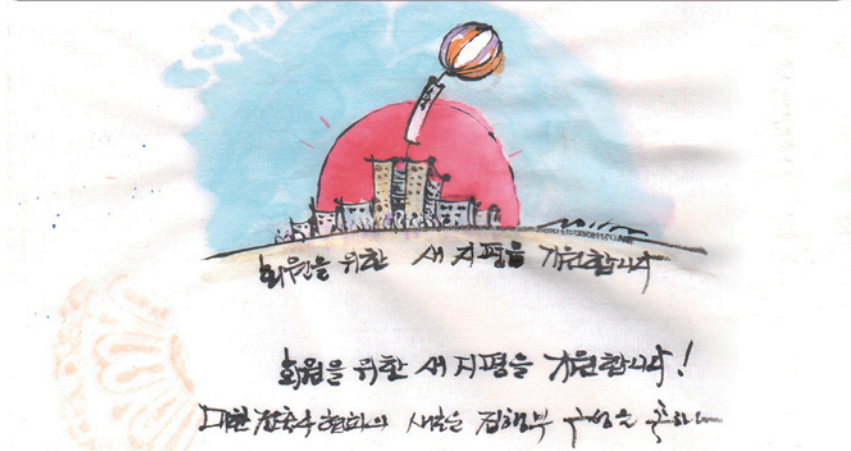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분은 '백범 김구' 선생이다. 그분이 애송한 시가 있다. //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갈 때엔 / 아무렇게 걸어서는 아니 되리 / 오늘 걸 어간 나의 발자취가 / 뒤에 오는 사람 길잡이가 되리니 // 백범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눈발길 함부로 밟지 마라. 그대 발자국이 따라오는 이에겐 이정표가 되리라." 얼마나 함축되고 강한 울림을 주는 문장인가.

내 세월의 무게가 쌓일수록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인생길도 보게 된다. 내면의 길은 모르지만 이력을 통해 삶의 흔적을 보면서 그 길을 답습해 보고 훈 분들도 있고, 교훈을 얻어 나의 길을 수정도 해본다. 우리네 인생길이 하나만의 길은 아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그래도 방심한다든지, 잘못 따르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루하루가 쌓여 일 년이 되고, 일생이 된다. 하루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에 얼마나 지혜를 갈구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한 발을 내딛는다. 세상에 원래 길이 없었다. '누군가'에 의해 가기 시작하면 길이 된다. 우리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겠다.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법/령/소/식

□ [법령][의원발의][20122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장관리인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추락·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 또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는 한편, 현장관리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현장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제3항 개정).

□ [법령][의원발의][20123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시설주 등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상 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경우 장애인 등이 승강기 도착 대기 및 탑승 중에 겪는 불편과 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승강기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시설주 등이 장애인용 승강기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승강기 출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동작감지장치로서 출입문에 물건이나 신체가 접촉하기 전에 자동으로 되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 장치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강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되 광감지식 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 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 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5호 신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정명환
- 부편집인: 강동영, 박종호, 양우현
- 자문위원: 서재형
- 전담기자: 곽승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현,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행물: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주)씨엠엑스 건축사사무소 4,200,000원
- 세무법인 서정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 원고마감 : 매달 25일
- 문의 : 광주건축사회(062-521-0025 / gj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기분 좋은 날

외뿔 뱀은 꿈을 꾸면
돈도 없고
재수 있는 일도 생긴다던
그 꿈이
요즈음 가끔씩 꾸어진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똥차라도 보게되면
오늘은
무슨 재수 있는 일이라도 있으려나 해서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된다

행여 돈이라도 주어볼 양으로
똥만 보고 걸어도
있으라는 돈도 없고
똥도 없다



세상사는 느낌 _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여행

우리는 여행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생각에 익숙하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생각은 다르다. 몇몇은 여행의 현실이 실망스럽다고 할 것이고, 몇몇은 기대한 만큼 이거나 더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다.

양상한 나뭇가지가 추위를 견디고 있을 즈음, 나는 나의 오랜 친구와 함께 유럽의 한 도시를 거닐고 있었다. 그 도시엔 서로 닮아 있는 짙은 베이지색 석조 건축물들이 도로를 따라 앉아 있었다. 이 건물들은 배려심이 깊은지 유명한 관광지들보다 낮게 수그리고 있었다. 그 배려 덕택에 도시의 곳곳에서 관광지를 발견하기 쉽고, 어디서나 하늘을 마주하기 쉬웠다. 걷고 있는 여행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착한 도시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임에도 여행은 내 기대보다 한참 어긋나 있었다. 내 기대는 여행지에 대한 막연한 상상과 SNS를 통해 본 여행지의 단편적인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상과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걷고 싶었던 강변을 삼키는 홍수가 있었고, 일정 내내 구름 가득한 하늘은 야속한 마음을 가지게 했다.

자연만이 내 기대를 실망시킨 것은 아니었다. 도시의 유명한 관광지 직원 중 한 분의 불쾌한 태도는 기대를 넘어 현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나의 현실에 항상 관여하고 있는 나의 육체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고민 그리고 향수로 인해 여행지에 대한 감상을 방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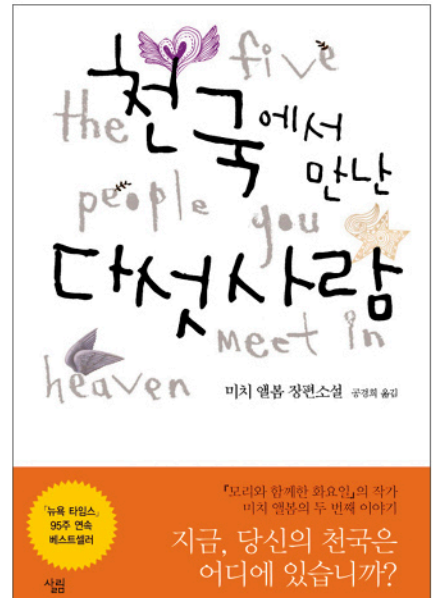
기대와 현실의 괴리는 내 여행을 망쳐버릴 정도는 아니었다. 괴리를 만드는 요소들을 알아감으로써 현실과 기대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다음 여행의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줄 것이다. 현실은 기대보다 많이 어긋나 있으니 놀라지 말라고 말이다.

책 소개 _ 박유현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미치 앨봄 저 / 공경희 역 / 살림출판사 / 2010. 02. 18.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죽음이란 인생의 끝을 의미한다. 나 역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보통 사람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이 책의 시작은 다른 책들과는 다른 시작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책들이 시작할 때 주인공의 어린 시절 또는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시작한다면 이 책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한다.”



주인공인 83세 할아버지 에디는 루비가든이라는 놀이공원의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다. 이날도 평범하게 놀이기구를 정비하던 와중에 고장 난 놀이기구가 떨어지려는 찰나에 밑에 있던 여자아이(에이미)를 구하고 대신 죽게 된다.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된 에디는 다섯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먼저 에디의 어린 시절 에디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운전자 요제프를 통해 인연을 배우고 두 번째 전쟁에서 함께 싸우던 상사를 통해 희생물, 세 번째 루비를 만나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배우고, 네 번째 아내였던 마거릿을 만나 '사랑', 마지막으로 딸라라는 아이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배우게 된다.

나는 여기서 '인연'을 배웠다. 우리나라 말 중에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책에 나오는 에디와 만난 다섯 사람들은 모두 에디와는 별개인 사람들이었지만 일생에서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연히 알게 되는 '인연'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 만나가고,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도 내가 다른 모르는 사람의 일생에서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인연'이라는 두 글자를 이해시켜 주었다.

또한 끝은 완전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의 배경은 죽음 다음의 일생이다.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그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고 과학적으로도 죽음 다음의 일생은 인정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모든 것의 끝이라고만 생각했던 죽음이 새로운 일생을 알리고 전생과 앞으로의 미래를 구분해주는 시작점으로 느껴졌다.

삶과 죽음은 의미부터 정반대의 단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은 떼어 낼 수 없는 관계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아킴

대한민국 1호!
다운로드 1위!!
이용자수 1위!!!

전국 건축사 검증 완료!!!!
대한민국 1등 스마트감리앱 아킴

스마트 아키텍트 !!

- 1) 10분 등록, 365일 스마트감리
- 2) 자동작성 사진대지, 사진보드
- 3) 클릭 완성, 감리일지마법사
- 4) 터치 완성, 스마트체크리스트
- 5) 작성 서식 미리보기
- 6) 사진, 일지 sns공유
- 7) HWP, PDF 다운로드
- 8) 3개 아이디 통합 사용

전화문의 (02)3462-1336 매뉴얼 다운로드 www.archim.kr